

#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7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4. 6. 28(금) 11:00 ~ 12:28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김진각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정갑영 위 원  
정정숙 위 원  
홍성태 위 원
- 불참위원 : 김미라 위 원  
배은주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종열 위 원

##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37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 일정상 오후에 하게 되면 개의 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오전 11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께서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 등 보고안건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인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조정팀 이성진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개의 정족수가 3분의 2인데 12인 중 8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회의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에 개최한 제375차 전체회의는 의결안건 5건이 상정되었고, 모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면으로 개최한 제376차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마찬가지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 4.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보고안건 체육기금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을 4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드렸고, 그 이후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16일간 공모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예술가의 집에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원로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원로예술인들의 활동기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고 예산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최소 지원액은 2,0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입니다. 개인 신청이 불가하고 원로예술인은 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개 공연만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인력 구성은 창작자와 출연진 등 2가지 요건. 창작자 중에 최소 1인 이상을 원로예술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출연진 중에 참여인원의 총 30% 이상 원로예술인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다만, 현대무용이나 발레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서 출연진 비율 미충족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획자나 스태프 등을 원로예술인 중심으로 산정해서 참여율을 계산했던 기준을 제외해서 창작과 실연 중심의 원로예술인 참여비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또한 비록 체육기금이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는 신청을 불가하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건 이상의 문예기금사업을 받고 있거나 창작산실이나 창작주체 선정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재원은 다르지만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문예기금 공모사업 기준을 적용해서 제외했습니다.

간단하게 전년대비 2024년 주요 개선사항 내용입니다.

사업목적 명확화 부분은, 작년의 경우 우수 콘텐츠 개발 외에 지역문화격차해소, 취약계층 공연관람 기회 제공, 지역 공연개최 기회 확대 등 다소 신나는예술여행과 같은 문화복지성 사업목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수성으로 일단 정리했고 분명하게 사업목적을 타겟팅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③번 지원 형평성 개선은 지금 보고를 드렸듯이 문예진흥기금 창작 유형 선정단체는 일정 부분 신청을 불가하게 함으로써 중복 수혜 제외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④번 신청 유형 통합은 기존에 각각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심의위원 구성을 장르별 심의위원과 함께 탈장르. 문화일반 전문가 4인 등 총 8인으로 구성해서 원로예술인과 공연예술분야 전반에 이해도가 있는 심의위원을 지정 위촉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원신청 접수결과는 총 14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3건이 감소되었는데 표를 참고하시면 19건 감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3건 감소는 행정결격을 하지 않았을 때 171건이라서 그 기준으로 23건이고요. 표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행정결격을 제외했을 때 167건이 2023년에 신청되었고, 2024년에 신청된 건수는 148건입니다. 장르별로 전체적인 건수 비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1% 적게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지원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58.8%, 비수도권이 41.2%로 전년대비 비수도권이 약 8.5% 증가한 수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지원심의 대상으로 행정 결격 14건이 제외되었는데 대체로 내용은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단체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 심의대상은 134건입니다. 7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장르별로 몇 % 비율이 참여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지원심의 기준은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적 타겟팅의 명확성을 반영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격차 해소 부분을 제외하고 우수성 부분으로 심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8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구성 과정에서 하나의 쟁점이 있었다면, 7페이지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 다원예술 심의대상 건이 2건에 불과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다원예술 장르 심의위원의 별도 구성을 제외하고 문화일반에서 탈 장르적인 부분을 심사하실 수 있는 분을 넣어서 저희가 8인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은 사무처와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섭외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6월 10일 심의위원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최종 8인의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방침의 다른 것은 동일한 내용이고요. 특히 저희 지역균형지원제가 27.1%가 정시공모 때 나왔던 평균값을 넘었기 때문에 최소 27.1% 비수도권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는 저희가 7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수치에 굵은 색으로 표시된 표를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무처에서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2024년 최종 예산 배정은 7억 1,000만 원을 백분율에 따라 이렇게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지원심의 추진 결과는 총 2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연극·뮤지컬 8건, 무용 3건, 음악 6건, 전통 예술 5건이고요. 다원예술은 2건이 들어왔는데 전수검토제를 했는데 10등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다른 분야로 예산을 조정해서 조금 더 결정액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결정액 비율이 예를 들어 무용이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배분했던 기존 금액은 7,800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원에 배정되어 있던 5,200만 원을 다른 장르로 배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지원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22건 중에 지역소재 단체는 6건으로 다행히 27.1%의 최소 지역균형보장제를 준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4건 중에 22건이 결정되어서 16.4%이고 신청금액 대비 결정금액은 14.2%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7월 5일에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7월 둘째 주부터 사업설명회와 교부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붙임1 자료는 22개 단체에 대한 명단과 각 단체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로 각각 장르별로 2개씩 더 추가해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요. 11페이지에 지원결정에서 마지막 비율이 무엇에 대한 비율인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첫 번째 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경 위원** : 11페이지 첫 번째 표에서 마지막에 비율이요. 결정액 다음에 있는 비율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신청대비 선정단체의 건수 비율입니다. 그리고 신청액 대비 결정액 비율입니다.

옆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훈경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진각 위원** :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8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일반이 4인인데요. 다른 분들은 다 장르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화일반이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다원예술 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인이 투입되었는데 다원예술 쪽은 1인도 선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문화일반의 4인은 연극이나 무용, 음악, 전통예술 쪽도 심의를 했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네. 통합심으로 진행합니다.. 134건을 대상으로 8인이 전수검토를 하셨습니다. 연극 심의위원이 연극만 보신 게 아니고 134건 전체를 다 보셨고요. 최대와 최소를 뺀 평균값을 가지고 심의를 시작했구요. 그래서 보셨을 때 공통적으로 다원예술분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4건 중에 적어도 20위 권 정도로 선정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급적 30위권이나 40위권 안에 들어서 얘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순위가 100등 밖으로 나와서 전체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적절하지 않다.” 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김진각 위원** : 문화일반 심의를 하는 분들이 보통은 장르별 심의에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작년에 심의를 했던 부분을 환류해 봤더니 10인으로 구성됐는데 장르별로 2인씩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장르별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르를 깨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서 우수한 콘텐츠면서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할 때는 장르별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일반, 프리랜서나 잡지 쪽에 계시든 전반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예. 또 하나 여쭙볼 것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난 4월 전체회의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원로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원로예술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원로예술인의 비율은 사실 높지가 않잖아요. 출연자 같은 경우 3분의 1도 안 되고요. 30% 정도고요. 그리고 창작은 1인이 해당되는 숫자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을 보면 원로예술인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포함되는 비율이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대체로 30% 이상은 기본적으로 지켜졌고 단체나 장르에 따라서 50%, 60%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대로 몇 % 정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했었는데요. 장르별로 특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창작자 유형과 실연자 유형을 합쳐서 나가자. 작년에는 분리가 돼서 “원로예술인 사업취지가 맞는가?” 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반영 비율은 장르 특성에 따라서 각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르별로 각각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올해는 30% 정도로 정했구요.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왜 제가 여쭙보느냐 하면, 원로예술인 지원 사업은 사실 원로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원로예술인을 공연에 끼워넣기로 들어가는 구조. 그래서 예술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따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소수의 원로예술인을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면 곤란하죠. 사실 이 사업이 지속되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피드백, 평가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체육기금사업으로 수탁받아 진행하다보니 사실은 체육기금 내에 평가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단체들은 이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 들어올 단체들이고요. 그래서 심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가셔서 이분들이 정말 사업 취지대로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각 위원** : 우리 아르코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비슷한 사업은 여러 지역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중복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덩어리라고 볼 수 없지만 올해 7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입니다.

IFACCA 2025년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추진경과에 대해서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오늘 IFACCA 2025년 문화예술세계총회 개최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작년 7월과 12월에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추진경과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10월에는 제안서 최종 발표 및 유치가 확정되었고 12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올해 1월 26일에 아르코와 IFACCA 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행사운영 대행업체를 선정했고 총회 주요 메뉴 확정이나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3번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IFACCA와 아르코 간 MOU 협약 범위 내에서 총회 개최 위원회는 예술위 사무국과 IFACCA 사무국 그리고 국제프로그램자문위원회인 IPAC로 구성이 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제프로그램자문위원회 IPA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PAC의 역할은 내년 총회 프로그램 주제를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 발제자를 섭외하는 내용 등입니다.

IPAC 구성원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IPAC은 올해 3월에 발족을 했고요. 5월에 주제 구성 토의를 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연사 추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추천된 연사들을 바탕으로 10월까지 세부 프로그램이나 발제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주제는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이고요. 세부 주제의 접근방식은 지식 체계와 주제, 참여 체계와 유대감, 디지털 체계와 기술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5년 5월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같은 연도 2025년 9월에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UNESCO MONDIACULT)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단 MONDIACULT에서는 Post-SDG의 문화를 포함하기 위해서 문화관계자들이 많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문화를 단독 목표로 포함시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할까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있는 MONDIACULT에는 저희 기관이 IFACCA 정회원이기 때문에 기관장 참관 자격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5번 안의 표를 보시면 본 행사에 대한 큰 줄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행사는 25일부터 시작되나 25일과 26일에는 회원 행사고요. 문화예술세계총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운영의 컨셉은 일단 메인 행사장을 마로니에 공원 일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집과 이음센터 등의 공간을 폭넓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학로라는 공간에 대한 평가와 예술지원기구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을 활용해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안)은 7월부터 참가자 등록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공식 언어는 한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입니다. 언어가 4개이기 때문에 등록부터 내년 총회 운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제프로그램자문위원회 구성을 봤는데 혹시 국내에서는 별도의 자문기구나 실행기구를 만들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위원회가 직접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는 이진준 선생님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의 의견과 우리 예술위원회 사무국의 의견으로 충분할지? 내부적인 자문위원회는 없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MOU 협약 범위 내의 조직구성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예술위와 국제자문위원회, IFACCA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진준 교수님이나 사무국의 의견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7월 내로 별도의 조직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실무단과 긴밀히 협력해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IFACCA 사무국이 주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한국인을 1인 넣어달라고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IFACCA총회를 운영하고 개최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관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총회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얻어야 되고 함께 해야 하는 기관들을 조직위의 참여기관으로 해서 구성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7월 중에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진각 위원** : 주제는 확정된 겁니까?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주제는 작년부터 예술과 기술 융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IFACCA 사무국과 예술위와 위원장님께서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해왔고요. 예술과 기술 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고 세부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접근 방법을 3개로 나눠 조금 더 많은 것을 다룰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90여 개 국가에서 400여 명이 참여를 하다 보니 어떤 기술이나 정보라는 큰 주제 하에서도 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본인들이 경험했던 경험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대주제로 모으더라도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더 열 수 있는 확장된 주제들로 구성하려고 하고요. 오전에는 전체 총회 세션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병행 세션으로 진행해서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로, 3일이나 15개에서 20개 정도가 같이 돌아갈 예정이라서 국가별이나 여러 이슈들을 담을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희가 이것을 주도해서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제안한 것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확장성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대안 중에 하나로 APE CAMP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면서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IFACCA 사무국에서는 우려를 하는 게, 지금 유 팀장이 얘기한 대로 국가 간 상황에 차이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떤 국가들은 언감생심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이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IFACCA 취지하고도 어긋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고요. 아울러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들,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주제로 잡고, 우리가 중점을 두려고 했던 부분은 대주제 중에서 1개 주제로 설정하고 나머지 2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각 위원** : 모르겠습니다. IFACCA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겠지만 주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느낌이 좀 들고요. 사실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라는 것은 선진국이든 못 사는 나라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글로벌 아젠다가 될 수 있잖아요. 글로벌 아젠다로서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정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는.

**정병국 위원장** :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IFACCA총회에 참석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세션에서 제가 그 문제제기를 했어요. “선언적 의미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냐?”, “이런 회의를 왜 계속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다음 회의를 동의해 주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이런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만들어보겠다.” 라고 그랬는데 IFACCA 사무국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가 추후 다른 나라가 이것을 개최할 때 이만큼 따라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본 적이 없었고 늘 선언적 입장에서만 해서 저희가 APE CAMP를 실천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했더니 아주 난색을 표명해서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할 테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참관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해서 겨우 이 부분도 제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IFACCA총회가 3년마다 개최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하고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김진각 위원** : 문화예술이 사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영역에 매몰된 형식이 되잖아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글로벌이슈 부분은 17페이지 기타 참고사항 안에 보면, Post-SDG 안에 문화라는 아젠다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세션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말씀해 주신 “손에 잡히지 않는다.”, “너무 거대 담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라는 부분들은 큰 주제 안에 병행 세션이 10개에서 15개가 운영될 때 그 안에 세부 주제로 녹여서 10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세션을 별도로 하나 주셨는데요. 내부적으로 고민 중인 것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연사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세련되게 풀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개에서 15개 병행 세션 안에 한국의 연사들이 모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한국이나 아시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사들을 배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주제를 디벨롭할 때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도 그 세션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각 위원 :**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나 AI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외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총회를 위한 총회밖에 안 되는 거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그래서 방금 언급해 주신 그 부분을 세션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간에 ISEA 2025가 같이 열리고요. 리더스 라운드테이블도 같이 열립니다. 그때 주제가 예술과 기술이라서 그쪽 연사들과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성태 위원 :** 내년 5월에 우리가 신문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낼 거잖아요?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면 “IFACCA를 왜 한국에서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0년 전에 제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3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위상이 전과 같지 않고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영국이나 파리 같은 느낌을 해외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저희가 동아시아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 행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에 아웃바운드에 방점을 두었는데요. 인바운드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서울만 각광받는 게 아니라 지역의 문화재단과 같이 협력하는 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하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태 위원 :** 그러니까 서울이나 한국이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요. 왜 하필 IFACCA가 우리나라에서 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IFACCA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거나 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계의, 그 국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단체들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직입니다. FACCA의 결속력이나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은 UN 산하기관 등과 같

이 국가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IFACCA 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예술과 기술로 잡았던 이유는,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협업을 하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집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IFACCA총회를 통해서 한국이 지금 문화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글로벌 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받고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하는데 주를 뒀다고 하면 이제는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한국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실사단이 왔을 때 대학로에 왔는데 처음에 이쪽을 회의 공간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와서 보더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한 달에 2~3건 정도 해외 국가기관이나 단체들이 우리 위원회를 벤치마킹하려고 계속 방문합니다. 심지어 영국의 British Council에서도 아시아 총괄책임자가 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APE CAMP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욕심대로라면 최소한 예술과 기술의 중심이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며칠 전에 성공리에 끝났습니다만 APE CAMP를 실행하는 액션프로그램으로 그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리는 기간 중에 APE CAMP를 올해는 20%만 오픈했는데 내년에는 반 이상을 해외에 오픈해서 해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올해까지는 20%만 선발해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했는데 내년에는 20개조 100명이 다 원하면 한국에서 3개월 정도의 레지던시 사업을 실행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IFACCA총회 기간에 실행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보고 그 중에서 “이 팀은 우리하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올해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 포항 지역문화재단에서 한 프로그램을 자기들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결시켜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지자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레지던시 사업으로 실행하겠다고 하면 그쪽과도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해서 APE CAMP를 중심으로 해서 아트&테크 쪽의 중심지가 한국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계기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APE CAMP가 1면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그런 방향으로 인터뷰를 할 때 제시를 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길게 우리 내부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총회고 국내에서도 그만큼 부각되고 각인되어야 할 총회이기 때문에 예술위원회가 국제적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는 브랜드명 내지는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홍보 차원의 브랜드명을 고민하셔서 이것들이 하나의 국제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여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긴 설명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홍성태 위원** : 너무나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총회를 유치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르코의 존재를 부각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잘 살피고 도움을 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3년 공공기관 법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2023년 공공기관 법정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수검하고 있는 외부 평가가 대략 10개 정도가 됩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접하셨겠지만 그중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가장 주목 받는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무부처 평가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저희 기관도 2019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 문체부의 경영평가를 수검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문체부 산하 40개 기관이 경영평가를 수검했고 우리 기관이 이번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첫 번째 A등급을 받은 이후에 이번까지 4년 연속 A등급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기관이 우수한 성과 기관이 되었고요. 더욱 이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처에서 10명 정도의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2달 정도 성과를 정리하고 가장 성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에서도 실사 평가도 매끄럽게 답변을 준비하고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술교육진흥원과 같이 전체 40개 중에 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는데요. 아직 세부 점수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가장 높은 점수였기 때문에 올해 더 좋은 성과가 많이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기관의 문제의식도 많이 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외부에서는 위원회가 잘 해 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계속 개선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상반기에 수검한 평가결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예산체계,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미흡’을 받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 받게 되는데 다행히 저희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같은 경우도 세부 사업 단위로 해서 3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올해는 세부 사업 중에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도 ‘미흡’은 없었습니다. 다만, 수검대상 중에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 방식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기존에는 객적점유률과 같이 아웃풋 중심의 지표만 있었는데 ‘만족도’와 같은 아웃컴 지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의견보다는 요망사항인데요. 지금 A를 계속 받았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분명 S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에 대한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등급이라는 게 있을 때는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서는 최대한, 아까 10명의 대표선수로 잘 하셨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A를 받다가 B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유 지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려는 노력, 우리가 인원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역사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에 만족하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발전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나?”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정도니까요. 이것은 요망사항으로 남겨 주시고 앞으로는 더 모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사실 올해도 S등급을 목표로 해 보자고 했었는데요. 이번 기재부 평가에서 S등급

은 나오지 않았고, 문체부 평가 같은 경우 한 번도 S등급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작년에 전체 평점으로 86점을 처음 넘겼고요. 90점을 넘게 되면 S등급이 되는데요. 점수 상 90점을 넘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다만, 평가단에서 판단했을 때 “상징적으로 가장 잘한 기관은 S등급을 줘야 한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S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그 판단에 충분한 근거로 성과를 제시해야만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S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심의하시고 안건처리를 해 주신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좋은 등급을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노력해서 최고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경영전략소위원회 3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2024년 경영전략소위원회 3차 회의는 자료에 있는 대로 6월 20일에 열렸습니다. 회의안건은 기관 중장기전략 수립 경과 및 기본계획(안)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활동 기본계획(안) 그리고 위원회 안건 처리 기준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등 3가지였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 같은데요. 세 번째 위원회 안건 처리 기준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은 사무처에서 별도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기관 중장기전략 수립 경과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고요. 지난 번 회의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은 예술위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비전과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구요. 이 부분을 신속하게 사전협의의를 통해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은 비교적, 사무처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은 당장 8기 위원회나 다음 번 위원회 시간 범위를 넘어서서 10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및 세계적 차원의 문화예술 흐름의 변화를 잘 주목하고 파악해서 이에 부응하는 예술정책 수립이 되도록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예술지원 관련 유사기관 간에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술위의 역량강화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된단든지 하는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 결과와 세부과업 및 담당은 23쪽과 2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5일에 워크숍이 진행되어서 보다 발전된 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24쪽에서 25쪽을 보시면 제언사항 및 논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활동 및 기본계획(안)은 25쪽과 2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사무처가 정리를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은 지금 당장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주제입니다. 따라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여론 환기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 간에 기금재원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 및 22대 국회 정책대상자에 대한 설득작업. 국회 공론화를 통한 법정 수입원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절차 돌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 목표 설정 및 득과 실에 대한 사전 분석과 구체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문예기금 지원을 받는 유관 기관과 협력 및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항상 문화예술위원회와 문체부, 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앞장서서 나가는 거죠. 단독으로 플레이를 해 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받는 다른 기관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를 경과하는 거죠. 통과해서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이 문제가 되면 그런 기관들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과 동시에 기금 확충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필요하다면 담당자를 만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위원회가 단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사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 및 예술단체 협력을 통해서 여론전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고, 정책결정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입장 및 필요성을 전달하는 과정도 올 하반기에 예산 작업과 관련해서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상 2가지 안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태 위원 :**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고요. 빌게이츠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목표를 세울 때 1년에 대해서는 overestimate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10년 계획을 세울 때는 underestimate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꼭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중장기전략이니까 좀 대답하고 담대한 전략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더 큰 그림이 나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게 반도체 보다 결국 문화와 예술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 아르코가 씨를 뿌리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나온 것도 아주 잘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굉장히 잘 하는 나라들을 앞서 갈 수 있는 전략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갑영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진각 QM께서 주도를 하시고 사무처가 모든 작업에 참여하는 과정도 있어요. 기존 같으면 용역이 나가거나 외부에서 분석해서 제안하고 보고서를 마련하는데요. 이번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주요 목표는 예술위 스스로 예술위의 역할과 미래에 할 일을 기획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예술위가, 지금 홍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고요. 우선 예술위가 앞으로 10년 동안 바라보는 예술세계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술위는 지원기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진단을 해 보고 그것에 맞는 주위 상황의 여건, 유사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예술위는 어떤 조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한다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목표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외부에서 하는 이런저런, 또는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이런저런 것 말고 예술위가 스스로 예술위의 장래를 한번 결정하는 시도를 해 보자는 첫 번째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전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요는 27쪽 제일 위에 있고요. 안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예술후원을 발굴하는 문제. 또 이것을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예술위원회 브랜드를 어떻게 강화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2가지 안건을 놓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후원 발굴 확대 관련해서는 2022년 문체부에서 기업의 후원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예술후원의 중심은 기업일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업후원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효과 연구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용역이 예술위가 법정 기부금 단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 용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부금 단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물, 성과 등과 별개로 어쨌든 용역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후원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관련한 내용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후원 활성화를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공론화를 조금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를 놓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는 27쪽에 나와 있지만 기업의 후원 활성화 방안. 가장 실효성 있게 후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후원이 잘 되고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영국,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술에 대한 기업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라운드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조세감면 관련된 연구를 했던 한국 재정학회, 구체적으로 서울시립대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시립대 연구책임자를 참여시키고 기업후원을 잘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참여시켜서 라운드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에서 앞으로 예술위가 만들 협의체로 중소기업중앙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관계기관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논의할 방안들도 찾아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체는 곧 구성이 될 텐데요. 7월 중에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조세 분야 그다음에 기업 관련된 내용들과 맞물려서 일단은 전문가 전체회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회의를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게 후원활성화법이 있는데 후원활성화법을 손질해야 된다. 이것을 개정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되는가도 협의체를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은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을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요. 올해도 합니다. 대중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행사인데요. 일단 라인업이 대충 정해져 있고요. 이번 행사가 신나는예술여행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치르는 행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예술여행이 문예기금 7억 원 정도를 갖고 와서 쓴다고 하는데요. 신나는예술여행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주로 가족단위, 학생들,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한 공연들, 행사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방향성이 설정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주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단위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라인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구성된 라인업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들도 있고요.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무대 전환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예술위의 사업과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꼭 집어넣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예술 기부, 후원 등의 분위기를 확산시켜가는 목적이 가장 큰데요. 지금 예산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작년에는 갑자기 잡힌 행사이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신나는예술여행 예산으로 치르게 되고요. 그런데 올해로 예술위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지금부터 짚어야만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위원회 브랜드 강화 방안인데요. 사실 예술위원회가 50년 된 기관이지만 일반인들, 대중

들한테는 전혀 다가가고 있지 않다. 예술단체, 예술가들을 위한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브랜드가 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또 제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사실 예술위원회 홍보라는 게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홍보 방안이 SNS를 통한 홍보인데요. 예술위원회 SNS를 보면 채널 구독자 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 6,000명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보다 낮은 숫자고요.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 거의 9만 명에 육박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실정입니다. 예술위는 인스타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역시 SNS 홍보의 중심은 유튜브라고 봤을 때 유튜브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콘텐츠를 보완한다거나 기술적으로 노출이 잘 되게 하는 방안들. 그래서 SNS 중심의 홍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는 예술위의 브랜드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SNS 홍보 강화 방안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술후원 활성화 관련해서는 라운드테이블을 한번 개최하고 이런 것을 한 후에 활성화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것은 국회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작년에도 저희가 구성안을 만들 때 이왕이면 저희 예술위의 축제나 사업으로 했던 예술인들이 섭외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신나는예술여행의 작품 중에 가족과 아이들, 소외계층 그리고 공간을 이용한 공연들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평가도 있고 모니터링 자료도 있으니까 한 두 단체 정도 섭외해서 같이 넣으면 의미도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진각 위원** : 사무처에서 짠 라인업을 보면 사실 예술위원회의 사업과 연관된 라인업은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장** : 들어가 있던데요. 여기에서 후원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국악 단체가 1개 들어가 있던데요.

**이제승 정책후원센터장** : 국악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메인스테이지는 어린이, 가족들이 좋아할 대중가수도 있고 뮤지컬도 있는데요. 사실 공간이 되게 넓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들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공간과 시간을 채울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신나는예술여행 활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추가해서 나중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위원회 브랜드와 관련해서 저도 그동안 끊임없이 홍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부서도 바꿔보고 조직도 바꿔봤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조직이 그동안 사업별로 홍보를 진행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주다 보니까 전혀 생명력 있는 홍보가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홍보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다는 우리 직원들로 홍보팀을 마련해서 이전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땀땀 형식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테이블에서 전략 수립을 하시려고 한다면 조속히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진단해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진행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 3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훈경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지난 6월 14일 있었던 3차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내용의 주제는 연극 분야의 현장 간담회와 장애예술 간담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연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민국연극제에서 100인 토론회에 저희 소위원회가 같이 들어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원로예술가와 지역에 있는 지역예술가들 100인 정도가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데요. 그중 2부에 저희가 들어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개막식이 진행되고요. 장애예술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청와대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 현장 예술가들과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공연장르 분야들은 장르의 특성과 체감 온도가 각기 다른 관계로 방향성을 조금 더 모색해서 하반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진행되는 것들. 다른 부서에서 보고 받으신 내용도 같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후속 보고에 보시면 문화예술생태계 분석을 통한 연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마침 예술생태계에 관한 현장 보고 연구를 진행하는 게 위원회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게 꽤 있고 마침 그 연구계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관계로 이쪽에서도 아마 간담회 때 오셔서 얘기를 듣고 추후 생태계 분석을 할 때 저희 소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주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추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간담회는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전체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일곱 번째 보고안건은 위원회 안전 처리 기준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난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정책연구 위원회 안전 상정 기준 마련에 대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현재 위원회 안전처리 기준이 없음에 따라서 생겨난 모호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으로 위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크게 3가지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법령의 일부가 미적용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예진흥법 30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직무가 있고 그 안에는 심의·의결해야 하는 건들이 있는데 지금 8개의 호 중에서 4호와 6호.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 안전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한 문제인식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식은 안전 상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술위원회 정관을 보면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내부지침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을 뿐이지 규정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결처리 방식의 비효율성입니다.

과거 5개년 전체회의 의결안건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물론 원안의결이 문제인 것은 아니네요. 이중에 다수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규정 제·개정 사항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미 끝난 지원심의결정 안건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시간이 불가피하게 길어진다는 문제를 세 번째로 인식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해서 각각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저희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 안전상징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회의 상정 안건은 저희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데요. 잠깐 다음페이지의 별표1호를 보면 저희가 향후에 어떤 내용을 의결안건으로 올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원회 안건 상정기준입니다.

지금 구분에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는 문예진흥법 제30조 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것을 엄연하게 적용한다면 어떤 건을 의결안건으로 올려야 하는지를 대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 현재도 수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몇 가지 새롭게 추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 1번을 보시면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의결안건으로 올렸지만 기획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구분 4번에 있는 소유 시설 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6번에 있는 예술지원 정책개발 기본계획이나 문예진흥기금 교육·연수사업에 대한 계획 역시 저희가 올리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별표 1호로 의결안건을 운영규정으로 만든다면 추가해야 될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동그라미 첫 번째에 있는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안전 상징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좀 비효율성이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별 성격에 따른 보고 방식을 효율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재도 기본규정 제·개정에도 의결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위법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제·개정되는 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서면의결 처리를 한다면 저희가 대면하는 전체회의에서의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사업설계나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심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지원심의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수정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다수는 서면의결로 올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명문화하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만약 심의 및 의결권을 일임한다면 위원회가 굳이 별도의 서면의결 처리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만들어봤는데요. 이것은 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지원심의결정의 건도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만 해 보았고, 말씀드리는 것은 1안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넣어봤습니다.

더불어 아래에 보시면 국고사업 보고가 있는데요. 국고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 보고 없이 추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례적인 안전상징을 서면의결로 돌리다보면 저희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국고사업들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해당

내용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위 사항을 기준으로 구분한 월별 의결 및 보고안건 상정 내역들입니다.

공모사업은 정기 또는 별도공모 시기를 거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데요. 이것은 지금도 하는 방식이 고요. 정책개발, 시설관리 및 운영, 기획사업을 보고하게 되었을 때 안건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내용은 39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업별 위원회 보고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내역사업이 가장 하위로 보고나 의결을 하고 있는 안건들인데요. 현재 의결 안건은 대부분 공모사업 성격일 경우에만 의결안건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이나 기획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의결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로 넘기고 재교부 사업도 보고안건으로 안건처리를 하게 된다면 대략 연간 의결안건으로 14건, 보고안건 14건으로 총 28건 정도의 안건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건처리 시간이 다시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았는데요. 번거롭겠지만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1월 중에 저희가 시설운영계획이라든가 기획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1월에 위원회 워크숍을 주로 개최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위원회 워크숍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결처리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1분기 중에 나눠서 수립한 다음에 3개월에 걸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지정사업도 함께 보고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분기에 의결안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영전략소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정리한 자료고요.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7월 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회람을 드린 뒤에 7월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을 통해서 규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이것을 오늘 정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닙니다.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보고를 받고 바로 의견을 주시기가 힘들면 각자 보고를 받으신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기획조정팀으로 의견을 주시고요.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회의 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본 자료를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내용은 미처 인지를 못 했는데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연구조사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관련 법규를 전체적으로 보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규정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을 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다음 회의 때 의결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차기 위원회 일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 5.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7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 종료)

